

高設式 溫突집의 형성 및 전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 and the Deployment of the Go-sul-sik On-dol Houses

류 근 주*
Ryou, Geunju

Abstract

Go-Sul-Sik(高設式) On-Dol(溫突) houses have a combination of high Ma-Ru and high On-Dol structure. This type of house had been developed in the process of combining Ma-Ru with On-Dol. Go-Sul-Sik On-Dol houses give a clue to unveil exchanging process of Korean On-Dol and Ma-Ru. Go-Sul-Sik On-Dol can be understood as an architectural type of introducing On-Dol into the upper classes' Ma-Ru afterwards.

Apparently, Go-Sul-Sik On-Dol houses were not a two-story building. But they had a two-story structure because of On-Dol rooms, which implied a symbolic rank and On-Dol's practicality as well as its being high.

Go-Sul-Sik On-Dol houses were peculiar architectural type which realized lives of the very individual authority and symbolic representation within the strict Confucian society. It seemed to be derived from an alternative of the upper classes' architectural culture integrating an ideal into reality.

키워드 : 고설식 온돌집, 온돌, 마루, 실내바닥구조, 변천, 상류계층

Keywords : Go-Sul-Sik On-Dol houses, interior flooring system, transition, the upper cla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전통 주거건축은 비교적 낮은 높이의 마루와 온돌이라는 이질적 바닥구조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특색으로, 상류계층 주거에서 성립된 마루와 서민계층 주거에서 형성된 온돌이 상호 교류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전통 주거건축이 형성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온돌과 마루의 교류 과정에는 계층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건축형식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질적 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을 하나의 건물 안에 수용하기 위해, 온돌 바닥 및 마루 바닥의 레벨, 또는 그 형상 등을 변형시킨 다양한 건축형식이 생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혹한(酷寒)과 혹서(酷暑)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적 요인이나 지역적 성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우리나라 북부지역에는 마루바닥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은 없으며, 남부지역에도 마루바닥이 있는 주택과 마루바닥이 없는 주택이 같은

* 정회원, 극동정보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건물 바닥의 높이는 건물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마루 및 온돌방의 배치 관계, 즉 평면의 유형분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조사 연구되고, 바닥 높이와 구조의 변천과정이라는 관점을 포함한 연구는 불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는 기단(基壇)이나 지면으로부터 건물 바닥을 전체적으로 상당한 높이까지 들어올린 마루와 온돌로 구성된 ‘고설식 온돌집’¹⁾이 관찰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건물 내부 바닥의 높이와 분포지역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 주거건축과 명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설식 온돌집은 건물의 실내바닥이 높이 들어 올려져 있어 높다는 위계적 상징성을 주며, 동시에 온돌방의 실용성을 나타내고 있는 독특한 건축형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구조의 결합과정에서 생성된 고설식 온돌집의 형성과정과 실내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구조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해 이것이 갖는 주거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분석작업을 통해 고설식 온돌집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면은 고설식 온돌집이 마루와 온돌의 접합과정에서 나타난 건축형식이라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 본질적 개념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1.2. 기존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설식 온돌집은 건물의 실내바닥을 전체적으로 상당 높이 들어 올려 마루와 온돌을 들인 독특한 건축형식이다.

전통건축의 바닥을 형성하는 온돌과 마루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마루바닥만으로 이루어진 루정건축에 관련된 연

구에서는 건축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원예학, 민속학 등의 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온돌에 대해서는 다수의 일본인 학자와 국내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른 온돌의 보급은 다음의 세 가지 학설로 나뉜다. 첫째로 고려시대에 이미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학설인데, 온돌은 고구려의 서민주택에서 많이 시설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일부 상류계급의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庶民)의 주택에서 시설될 정도로 극히 일반화된 난방시설로 보급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둘째의 학설은 그러한 온돌의 초기적(早期的)인 발생 확인과 극도로 높은 보급지체(普及遲滯)란 자기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돌 보급을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류주택과 빈한한 서민주택으로 나뉘 고찰하려는 시도였다. 셋째의 학설은 조선초기에 온돌이 조령을 넘어 남부지방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온돌의 전파는 북방(北方) 즉, 한양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위하여 지어지는 건물에 의해 선도되어 그 뒤에 백성들에게까지 보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²⁾.

마루의 기원과 전래과정에 대해서는 남방, 북방전래 또는 자생설에 의해 많은 검토와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고상식(高床式) 건축을 둘러싼 기원, 계통, 전파라고 하는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과제였으며, 그에 따른 많은 연구성과³⁾가 있었다.

한편, 마루와 온돌구조 자체적으로도 많은 역사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서 온돌과 마루의 결합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며, 결합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마루와 온돌의 결합은 언제 우리나라에 완전한 전통주택의 정형(定型)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상

1) 류근주·김경표, 고설식 온돌집의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13권 9호, 1997. 9, pp.26~27.

2) 李鎬洙,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 嶺南大 博士學位論文, 1991.12, pp.137~140의 [온돌보급에 관한 기존학설의 검토] 내용 중 일부 발췌하였음.

3) 淺川滋南, 中國の民家.住居史研究, 日本建築史學會誌 第20號, 1993. 3 參照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온돌과 마루가 연접(連接)해서 한 건물을 이루는 방식은 적어도 고려시대 후기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온돌과 마루가 연접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전면온돌의 출현이다. 전면온돌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 13세기경이라고 가정한다면 그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온돌 옆에 마루나 부엌과 같은 다른 실이 달라붙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짐작된다⁴⁾고 하여 마루와 온돌의 결합과정과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류계층까지 온돌구조가 일반화된 것은 조선시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東文選의 公州東亭記의 기록만으로는 온돌과 마루가 고려시대에 결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주택 안에서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의 지역적 이동과 전파에 따라 온돌과 마루가 다른 지역에 소개되었다면 이 시기에 두개의 구조가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

한편, 바닥 레벨의 높고 낮음과 온돌 및 마루의 선후관계를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주택내부의 바닥구조의 변용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데, 단일레벨의 바닥구조에서 중층적 레벨의 바닥구조로 변용된 시기(공존기 ; 12세기 이전), 마루와 온돌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단일레벨의 바닥구조로 융합된 시기(융합기 ; 12~15세기 이전), 이 융합된 형태가 서민주거로 보급된 시기(보급기 ; 15세기 이후)로 나누어 이질적 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의 융합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안⁶⁾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적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높은 마루와 높은 온돌이 동일 레벨의 바닥을

형성한 고설식 온돌집의 건축형식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질적 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바닥의 고저(高低)에 따른 다양한 건축형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고설식 온돌집의 형성

2.1. 마루와 온돌바닥구조의 결합

현존하는 전통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고(最古)의 주택은 맹씨행단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불사(佛寺)건축을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건물이 없다. 그러므로, 고설식 온돌집이 형성되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에 관련된 문헌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朝鮮王朝實錄, 東文選의 기문(記文)을 비롯한 사대부 문집(文集)과 고문헌(古文獻)에 언급되는 내용의 고찰을 통하여, 마루와 온돌이 결합되는 건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 건립된 건물에 관련하여, 마루와 온돌이 한 건물에 병존(並存)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기록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公州 東亭記의 기록⁷⁾을 보면 경사지형에 루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면은 지면에 접하고 다른 면은 지면에서 들어올린 형태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양청(涼廳;마루)은 루마루 형태로서, 옥실(燠室;온돌방)은 지면에 접한 부분에 놓여져 건축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려중기에 옥실과 양청이 한 건물 내에서 더욱이 중부지방 공주지역에서 건립되고 있음은, 관아의 객사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마루와 온돌이 결합된 전통주택의 정형(定型)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151.

5)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p.80~81.

6) 조원석, 우리나라 傳統住宅內部 바닥구조의 變容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3卷 11號, 1997.11, pp.210~211.

7) 東文選 卷之六十五 記 公州東亭記, 「... 以面勢之東偏而建賓樓, 南嚮而崇主宇, 西序南廡, 共十四間, 更依之次, 設食之所, 冬以燠室, 夏以涼廳, ... 」

고려 무신정권의 晉康候 崔忠獻(1159~1219년)의 개인 별장에 관련된 기록⁸⁾을 살펴보면, 사계절을 고려하여 여름에는 더위를 모르고 지내며,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추위를 고려한 온돌방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이 지닌 가능성이 사계절의 기후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건물로 건축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楊廣道の 慶原(현 경기도 부천시지역)의 폐사된 건물 절터를 侍衛護軍 河元瑞가 충렬왕 30년(1304)에 다시 일으킬 것을 결심한 후 20여년 동안 재산을 모아서 건립하였다. 승방에 온돌을 들여 중들이 거처하게 하였으며, 큰 방은 마루를 사용한 것으로 “...골방·온돌방이 아늑하고도 넓은 것은 중들이 거처하는 데다. 큰채를 높게 행랑을 넓게 하니 깎아지른 듯한 산봉을 마루장에서 잠을 것 같고...”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 충정왕 원년(1349년) 남부지역인 마산의 객사를 중창한 기록¹⁰⁾을 살펴보면, 여름의 더위를 고려한 청방(廳房; 마루방)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으나, 온돌방이나 추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서술 중에 난방시설에 대해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추위보다는 더위를 고려하여 조성된 측면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온돌구조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남부지역까지 보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가 아닌가 사료된다.

공민왕 16년(1367) 안동도호부의 약원(藥院)이 건립¹¹⁾되었는데, 안동은 공민왕의 피난지 큰

역할을 하여, 왕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다. 중간의 고당(高堂)은 대청마루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쪽 3칸의 탕욕(湯浴)을 위한 부분의 바닥 구조는 마루구조인지, 흙바닥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서쪽 3칸의 약을 공급하는 곳의 바닥은 온돌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1392년 하륜이 건립한 영주의 제민루는 약재 보관을 위해 건립되었다고 하며, 현재 2칸의 온돌방과 4칸의 대청으로 되어있다. 또한, 약재를 보관하기 위해 온돌방에 저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비추어 안동 약원은 마루와 온돌이 결합된 건축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文選 月波亭記¹²⁾에 따르면, 과거에 월과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없어졌으며, 조선 定宗 元年(1399)에 崔關이 이 고을에 부임한지 두어 달 후인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다 한다. 월과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건물의 일부에 온돌방을 들여 추위를 피하기 위한 사대부들의 숙소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五臺山 水精庵¹³⁾은 조선 太祖 원년 가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다음해인 계유년(1393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중창을 하였으며, 본래 있던 암자와 유사한 형태로 건립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정면 5칸의 5량가로서 정면 3칸의

年春二月,.....法曹衙久廢而遺基存焉,乃立屋而名之曰藥院,總於重也,東廡三間,所以供湯浴也,西廡三間,所以供藥餌也,中高堂以壓之,所以待王人之至也,....)

8) 東文選 卷之六十六 記 崔承制十字閣記(... 若秋冬之候則有溫閣燠館在焉,閣之餉予樂如此,而予無以報於閣者,...)
 9) 東文選 卷之六十九 記 重修乾洞禪寺記-益齊 李齊賢(1287~1367년)記(...丹楹藻稅宏且麗者,所以居佛也,洞房燠室窈而廓者,所以處僧也,崇而堂廣其廡,挹絕嶠於軒窗,俯洪濤於庭戶,...)
 10) 東文選 卷之七十一 記 韓州重營客舍記(至正己丑秋,雨甚,馬山客觀南廓壞,....役以其年之間,纔數閱月,廳房廊廡結構既周,時方寒沍,不可塗墍,姑令寢工,迨明年春仲,功將告訖,不高不庫,以稱面勢,...)
 11) 東文選 卷之七十二 記 安東藥院記 - 李穡 記(1377년)(至正丁未秋九月安東府守臣之命下,....明

12) 東文選 卷之七十九 記 月波亭記 - 權近 記(1401년)(善州之東五里許,有津曰餘次,自尙之洛水而南流者也,賓旅之由尙而之南州者,亦至是站焉,實要衝也,..... 建文元年春,今國舅驪興伯閔公,奉使過此,惜其廢久而無能新之者也,.....八月始事,十月告訖,其梓人,即營漢城新宮都料匠也.故其制度頗極巧麗,且爲燠室,以待實旅之宿,...)
 13) 東文選 卷之八十 記 五臺山西臺水精庵重創記 - 權近 記(1404년)(江原交界有大山,五峰並峙,小大均敵而環列,世號爲五臺山,.....癸酉之春,方始董工,更就泉傍林木之下,相其面勢,尤爲奇勝,乃斷其木,乃剗其土,遺礎具存,宛然舊址也,..... 適樂趨事,以訖營構,其堂五架三楹,浴室二楹,其規制不甚異,從省便也,.....)

당(堂)과 정면 2칸의 욕실(浴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당(堂)은 대청마루로 짐작되는 바이나, 욕실(浴室)의 바닥구조는 짐작하기 어렵다.

崔忠成(1458~1491년)의 산당집(山堂集)에는 증실(蒸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한증(汗蒸)의 효능을 믿고 증실 2칸을 지었는데 그 중 1칸은 휴게실로 나머지는 욕실(燠室)로 만들었다¹⁴⁾. 욕실은 3, 4인이 앉을만한 크기로 만드는데, 네벽을 빈틈없이 두껍게 바르고 돌로 구들을 만든 다음 흙으로 터진 데를 메워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의 이용법에 대해 먼저 욕실에 불을 많이 때어 구들을 가열한 다음, 그 위에 길경(桔梗)·생애(生艾) 등의 약재를 놓고 물을 뿌려 그때 나오는 기운을 병자가 취한다고 했다. 이같은 훈증 치료법은 세종 9년(1427) 4월 대선사(大禪師) 天祐·乙乳 등의 승려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서울에 치료소를 차려놓고 시행했던 것으로 당시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였다¹⁵⁾는 기록으로 비추어, 고려시대의 사찰에서 승려들에게는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교역(金郊驛)은 개경과 평양의 중간지역에 있는 역으로서, 중국에서 개경에 이르는 외교 사신을 왕이 맞이했던 곳이며, 高麗史에 文宗이 정유 11년(1057) 거란의 사절 왕종양을 전송하려 나간 기록이 있다. 금교역의 퇴락함을 제기하며 영락 2년(1404)에 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1자형 평면으로서 중앙의 대청마루 좌우에 방을 들였으며, 원편 방 앞에 3칸의 루를 세웠으며, 그 하단에 추위를 고려하여 온돌을 들였다고 기록¹⁶⁾하고 있다.

世宗 29년(1447) 12월 왕세자나 대군의 거상(居喪)하는 예가 지나쳐 오히려 효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권제(權制)를 만들고 있는데, “... 거처하는 것은 때의 차고 더운 것을 따라서 판자상[板床]이나 온돌방이요, 베이불과 베베개를 쓰면 거의 질병을 면하여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라고 하여, 마루와 온돌방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中宗 20년(1525) 3월에 “듣건대 풍양궁의 어방(御房) 온돌이 여러 해 동안 불을 때지 않아 뱀이나 지네 따위들이 있을까 싶고, 또한 습기가 많아 비록 5~6일 불을 댔다 하더라도 그리 쉽게 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비운 궁실(宮室)에서 경솔하게 유숙(留宿)하셔서 안 되겠기에”¹⁸⁾하여 유숙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16세기 초 이전에 왕의 거처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온돌이 설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世宗이 직접 成均館 동서재와 李澄玉 형제의 처소에 온돌을 시설토록 한 것에서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¹⁹⁾.

이렇게 널리 보급된 온돌은 中宗 32년(1537) 8월 천릉(遷陵)을 하기 위해 지은 임시 건물에까지 대대적으로 시설될 정도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모든 일은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들으니 新舊陵의 假家が 규모가 2백여 間에 이르며 온돌과 대청같은 것은 오래도록 살집과 같이 지었다”²⁰⁾고 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온돌 증가 추세는 이제까지 마루방에 거처해온 궁중(宮中) 내인들에게 조차 보다 쾌적한 온돌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전의 마루방은 점차 온돌로 교체되어 갔던 것이다²¹⁾.

14) 山堂集, 卷二, 記, 蒸室記

15) 世宗實錄, 卷三十六, 世宗 九年 四月 丁未

16) 東文選 卷之八十 記 金郊驛樓記 - 權近 記(1405년)(金郊驛, 距王京西北僅三十里, 朝使之來, 及其復命以往, 每宿於此, 蓋來則王必先遣大臣, 迓勞於此, 詰朝率國人備儀衛郊迎,.....舊有館宇, 陰陋卑湫, 炎風暑雨 猨蒸尤甚, 而無納涼之所, 來者病之, 永樂二年秋八月,.....乃謂此驛, 最近于京, 使車往來, 所必憩宿, 堂屋抵陋, 無以稱國家欽重皇華之意, 盍撤舊而新之, 卽聞于國得報, 迺以九月始事, 取材埴瓦,

力不煩民, 迨未于而就工, 中高其堂, 翼以左右之室, 直左室之前, 起樓三楹, 宏敞軒豁, 不狹不陋, 下爲燠室, 以便寒暑, 越明年二月初而告訖,.....)

17) 朝鮮王朝實錄, 5輯, 世宗實錄, 世宗29年12月 丁丑

18) 朝鮮王朝實錄, 16輯, 中宗實錄, 中宗20年3月 庚申

19) 李鎬洵, 앞논문, p.142.

20) 中宗實錄, 卷 85, 中宗 32年 8月 辛亥

표 1. 조선중기 이전 마루와 온돌의 결합

文獻資料	關聯者	建立年代	備考
東文選 卷之六十五	公州東亭記	李仁老	1200年頃 涼廳, 煖室
卷之六十六	崔承制十字閣記	李圭保	1210年頃 溫突房
卷之六十九	重修乾洞禪寺記	益齊 李齊賢	1324年 溫突/마루(僧房)
卷之七十一	韓州重營客舍記	李穡	1349年 廳房(마루방)
卷之七十二	安東藥院記	李穡 記	1367年 湯浴施設
卷之七十九	月波亭記	權近 記	1399年 煖室
卷之八十	五臺山西臺水精菴重創記	權近 記	1393年 重創 浴室
卷之八十	金郊驛樓記	權近 記	1404年 다락집, 溫突
山堂集, 卷二,	蒸室記	崔忠成	1480年頃 蒸室, 煖室
世宗實錄, 卷三十六,	薰蒸 治療法		1427年 薰蒸 治療
補閑集, 卷下		崔滋	溫突, 外部아궁이
太宗實錄, 太宗 17年	成均館 齋	禮曹	1417年 온돌방(풍수방)
世宗實錄, 世宗 7年	成均館 東西齋	成均館 學生	1425年 5間 溫突(濕疾)
世宗 17年	濟生院	유실된 어된아이	1435年 온돌방/ 서늘한 방
世宗 20年	守墳施設	李澄玉	1438年 溫突房
世宗 20年	溫室	世宗	1438年 溫室(橋木)
世宗 21年	辟容	禮曹	1439年 辟容
世宗 29年	居喪	王世子, 大君	1447年 온돌방/板床
中宗實錄, 中宗 20年	光陵 풍양궁		1525年 온돌(御房)
中宗 32年	遷陵	司諫院	1537年 온돌/대청(暇家)

한편, 고려말 최영(1316~1388년)장군의 소유였으며, 사위인 맹사성에게 주었다고 전하는 충남 아산의 맹씨행단은 15세기 중엽 이전에 건립된 가장 오래된 살림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공자형(工字形) 평면구성으로, 중앙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대칭으로 이어져 있는데, 방바닥은 전체가 온돌로 되어 있다. 맹씨행단이 지어진 시기로 미루어 온돌과 마루가 이치럼 연결해서 한 건물을 이루는 방식은 적어도 고려시대 후기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²¹⁾.

문헌의 기록이나 맹씨행단의 내용으로 볼 때,

21) 李鎬洵, 앞논문, pp.145~146.
22) 김동욱, 앞책, p.151.

마루와 온돌의 들린 바닥구조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정형(定型)은 고려후기를 즈음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고설식 온돌집의 형성

東文選, 高麗圖經 및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고문헌(古文獻)의 고찰을 통하여 마루와 온돌의 교류과정을 살펴보면, 마루는 상류계층의 생활 공간으로서 높은 위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온돌은 하류계층의 난방방법으로서 점차 상류계층에 전파되었다.

고려시대의 온돌은 구들고래의 수가 증가하여 방전면(房全面)에 구들이 놓이는 조선시대의 온돌구조와 거의 같은 방전면 온돌로 발전함과 동시에 문헌상으로 볼 때, 13세기 경에는 고구려와 백제때 실내에 있던 아궁이가 실외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이때는 이미 완전한 전면온돌로 방이 구성되며, 건물의 방 외부에 아궁이가 놓였다. 온돌이라는 바닥난방시스템은 화덕의 굴뚝을 넓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왕신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온돌 위로 올라가는 행위는 신의 봉안장소로 올라가는 행위가 됨으로 상류계층이 그들의 주거에 취사난방겸용으로 온돌을 도입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15세기 이전에 일어난 상류계급 주거로의 온돌은 취사난방겸용이 아니라, 난방 전용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돌은 15세기초를 전후해서 점차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16세기초가 되면 더욱 촉진되어 계층과 지역의 구별 없이 온돌이 보급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충남 아산의 맹씨행단은 15세기 중엽 이전에 건립된 가장 오래된 살림집으로 알려져 있고, 구조 세부는 고려말과 조선 초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맹씨행단이 지어진 시기로 미루어 온

23) 李鎬洵, 앞논문, p.137.
24) 조원석, 앞논문, p.208.

돌과 마루가 결합된 주거건축의 형식은 고려시대 후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려말경에는 전면온돌이 남쪽까지 완전히 전파²⁵⁾되었으며, 마루와 온돌의 만남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정형(定型)은 고려후기를 즈음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은 온돌이 건강에 유리하다는 인식의 확산²⁶⁾과 무신정권과 공민왕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체성의 확립과 중국풍(中國風) 생활방식의 탈피 등의 온돌의 효용성과 실용성이 상류계층 주거로의 온돌 도입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온돌의 수용 결과로 나타난 고설식 온돌집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중국으로 오가는 사신사(使臣使)들이 머물렀던 역원(驛院)에 관한 기록에서 보인다. 금교역(金郊驛)의 기록에서 3칸의 루 하단에 온돌을 들었다는 의미는 실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3칸의 루가 일자형의 건물 앞에 루마루 형태로 돌출되어 있고, 그 하부의 기둥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에 원편 방의 아궁이가 놓여 있는 모습으로 보는 측면이며,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ㄱ자형의 평면에서 꺾인 부분에 루마루가 놓인 사랑채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이라 짐작된다. 둘째는, 3칸의 루가 마루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기록에서처럼 루의 하단(下端)에 온돌을 들었다면 3칸의 루는 마루구조가 아닌, 들어 올려 구들을 들인 고설식 온돌집의 형태와 유사한 측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의 묘사가 정확하다면, 고설식 온돌집의 형태를 제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북 북부의 안동권은 고려시대부터 사대부계층이 많이 활동하고, 타 지역보다는 유교(儒敎)를 일찍 받아들여 상류문화를 수용²⁷⁾하였다. 조선왕조의 창출에 큰 역할을 하였던 鄭道

傳, 權近, 河崙 등이 경북 안동문화권의 재지사족(在地士族) 출신이며, 고려후기 흥건적 침입에 따른 공민왕의 몽진로(蒙塵路)²⁸⁾와 피난처²⁹⁾가 고설식 온돌집의 분포지역과 동일선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에 비추어, 고려시대 상류계층이 이전부터의 거주양식을 유지하면서, 온돌의 효용성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여 온돌을 상류계층 주거에 도입하여, 높은 마루의 일각에 같은 레벨로 온돌방을 들이는 고설식 온돌집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설식 온돌집의 전개

3.1. 고설식 온돌집의 건축 형태

고설식 온돌집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루각(樓閣)이나 정자(亭子) 건축형식과 유사하나, 하층에 시설된 온돌구조와 들어 올려진 전체의 바닥높이에 의해 여타 전통건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고설식 온돌집은 다음의 기본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건물이 기단없이 바로 초석을 지면 위에 놓고 하부기둥을 입주(立柱)하거나, 초벌대 정도의 낮은 기단을 설치하여 그 상단에 초석을 놓고 하부기둥을 입주하고 있다.

2) 건물의 실내바닥이 지면이나 기단 위에서 전체적으로 1.2m 정도 이상 들어 올려져 있어, 바닥높이가 낮은 정자(亭子)와는 다른 건축형식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비교 검토한 일반적인 정자들의 하부 바닥높이는 기단으로부터 대체적으로 0.6m의 높이를 넘지 않고 있다.

3) 마루와 방부분의 바닥을 전체적으로 높이를 높였으며, 마루부분의 하단도 기단이나 석축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부기둥을 세워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지면으로부터

25) 조원석, 앞논문, p.204.(1.2 기준연구의 개요. 參照)

26) 조원석, 앞논문, p.208.

27)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7, pp.271~281.

28) 高麗史, 卷 39, 世家, 恭愍王 10年 11月 丙寅條

29) 崔永俊, 嶺南大路-韓國 古道路의 歷史地理의 研究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pp.99~121. 參照

표 2. 고설식 온돌집의 분포구조

지역	시기	16C		17C		18C		19C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강원				강릉향교1623		삼척향교1710				
경남						심소정 1757				
경북	경주권		옥산서원 1572		삼피정 1650	옥간정 1716 모고현 1730	연정 1750			
	상주권					옥동서원1715 방초정 1727		대산루1800 영류정		
	안동권	봉화				도암정 1650 몽화각		경제정 1770		
		안동	군자정1515 탁청정1544 후조당1550	쌍수당1551 겸암정1565 모선루1591	서지재사1634		체화정 1700			
		영덕			침수정 1609 난고정 1624 처인당	모고재 1670 청간정 1693 대봉서원1693	덕후루 1700	명서암 1773		
		영양			월담헌 1602 숙운정	삼수당		월록서당1759		
		예천					도정서원1700			
전북			광한루 1638	와룡암 1650				여산향교		
충북			회인향교1611 옥천향교1627	선지당	사로당 1710		삼피당,화수루 엽수재,응청각	청령헌1870		

마루부분에는 석축을 쌓아 그 위에 마루바닥을 낮게 구성하고, 연결하여 방의 하단에는 지면으로부터 온돌부를 높여 방(房)을 구성한 전통 주거의 일부 사례와는 다른 건축형식이다.

4) 일부의 사례는 입지한 경사지형 여건에 의해 상부 진입시 3~5단 정도의 계단(階段)으로 이루어 있으며, 건물 후면의 높은 지형으로부터 다리를 가설하여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건물 상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면으로부터 5~8단 정도의 계단과 같은 물리적 시설물이 필요한 건축형식이다.

5)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는 경사지형에 입지하였을 지라도 마루바닥 하부의 전면과 배면부가 완전한 개방되어 있어 전후면의 통풍과 시각적 배려를 고려한 마루바닥 하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마루바닥 하부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출입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형식이다.

6) 온돌구조부가 지면에 매입되어 있는 기존의 온돌형태와는 달리, 온돌구조부의 사면이 지면 위로 높게 노출되어 있어 온돌구조의 발전적 형태로 보이는 바, 고설식 온돌집은 건축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건축형식이다.

3.2. 고설식 온돌집의 현황 및 분포

본 연구의 사례들은 한국의 전통건축 관련 문헌과 자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추출된 고설식 온돌집으로서, 현재까지 조사 검토한 사례 중에서 표본이 될 수 있는 48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표 2]와 같다³⁰⁾.

30)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 파악을 위한 문헌 및 자료의 범위는 문화재관리국 조사자료, 사례의 유사 건물 관련 논문 및 서적, 그리고 각 도, 군의 문화재대관과 도록의 내용과 사진을 검토하였다. 검토 사례의 한계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지방기념물, 문화재자료에 이르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검

표 3. 고설식 온돌집 평면구성의 전개

시기	16C		17C		18C		19C		평면 형태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편측형	안동권	군자정, 탁청정, 후조당	쌍수당	월담헌, 서지제사	삼수당, 청간정				
	경주권				육간정				
	상주권					심소정	염수재		
	기타권			강릉향교		삼척향교		청령헌	
양측형	안동권	모선루, 겸암정	난고정, 처인당, 숙운정	도암정, 몽화각, 화수루, 모고계	턱후루, 도정서원강당	명서암, 월록서당			
	경주권		무변루	삼피정		연정			
	상주권			선지당	청월루, 사로당	영류정, 삼피당			
	기타권		옥천, 회인향교			응청각	여산향교		
중앙형	안동권		침수정		체화정	경제정			
	경주권				모고헌				
	상주권				방초정	대산루, 화수루			
	기타권		광한루	와룡암					

고설식 온돌집의 건립지역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일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분포지역은 크게는 강원, 경남, 경북, 충북, 전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례들의 건립지역은 경북지역의 안동 문화권을 중심으로 밀집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화재 관계자와의 면담 및 서신 교환을 통하여 살펴본 바, 경기, 제주, 전남지역에서는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를 살펴본 적이 없다고 한다³¹⁾.

토가 진행되었다.

31) 삼성건축 장기인, 장순용의 견해에 따르면, 경기, 제주지역에서는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다. 후시 차후에 미분포지역에서 조사되었다 할지라도, 건립지역에 대한 집중적 분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설식 온돌집의 조영특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한편, 차후 발견되면 사례의 건립시기 및 조영자의 고찰을 통한 상관관계를 파악해볼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사례들의 대부분은 3개 권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예천의 안동권(安東圈)과 상주, 문경, 김천, 충북 영동, 보은의 상주권(尙州圈), 영천, 경주지역의 경주권(慶州圈)이다. 이러한 분포는 고설식 온돌집이 이 지역에서 유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설식 온돌집의 조영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존하는 고설식 온돌집의 최고(最古) 건축은 16세기의 군자정과 탁청정을 들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안동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후 안동문화권의 봉화, 영덕, 영양 등지에서 건립되고 있으며, 17세기 후반 이후에 다른 3개 권역으로 확대 건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지역 문화재 관계자와의 서신 교환 및 전화를 통해 전남지역에서는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북에서는 조사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견해를 제시함.

다. 한편, 충북 영동과 경북 문경의 일부 사례들은 16세기에 창건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으나, 후대에 대부분 중수(重修)의 기록을 보이면서, 이전(以前)과 동일하게 보수하였다고 하는 바, 창건 당시에도 고설식 온돌집의 형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역적 분포에 예외를 보이고 있는 사례들은 국가나 관(官)에 의해 건립되거나 증건된 강원 지역의 강릉향교 명륜당, 삼척향교 명륜당, 전북 광한루 및 여산향교 명륜당, 충북지역의 웅정각과 청령헌 등이다. 이들은 향교와 관아건축으로서 건립되거나 증건되었는데, 건립 또는 증건을 담당한 지방관의 출신지와 학문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진안 와룡암의 경우는 산간의 지리적 특성과 서당(書堂)으로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건립뿐만 아니라, 조영자의 상관성에 따라 광산김씨 문중이라는 관련성이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호남지역에서도 모정(茅亭)건축³²⁾으로 표현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춘 건축형태와 건물의 중앙에 온돌방 1칸을 두고 사방을 마루로 감싸 개방한 특유의 정자형식을 하나의 건축형식으로 보듯이, 영남 북부지역에 일정 분포를 보이는 고설식 온돌집은 영남 사대부의 지역적 제반 형성요인에 의해 조영된 특별한 하나의 건축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3. 고설식 온돌집 평면구성의 변천

평면구성의 변천에는 온돌방과 마루의 결합 시기, 방의 위치 및 용도와 많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의 위치와 칸수에 따라 내부의 기능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방의 난방 효과나 온돌구조의 차이가 고려되어 조영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본 연구 사례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고설식 온돌집의 구성은 온돌방의 위

치를 기본으로 하여 온돌방이 좌우측의 한쪽에 있고 다른 부분은 마루로 구성된 편측형(片側型), 온돌방이 양측면에 있고 마루가 그 사이에 놓이는 양측형, 온돌방이 중앙에 있고 좌우측에는 마루로 된 중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³³⁾.

고설식 온돌집 사례들은 16세기 초 군자정, 탁청정, 후조당과 쌍수당을 기점으로 안동지역에서 편측형의 방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1. 편측형 고설식 온돌집(쌍수당)

이들은 사랑채의 성격으로서 방보다 마루의 면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인 공간의 기능을 넘어서는 사회적 기능을 위한 방구성으로 이해된다. 또한, 마루와 온돌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마루와 온돌의 연접은 상류계층의 마루에 하류계층의 온돌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상류계층의 큰 마루공간에 작은 온돌방이 접합되는 측면으로 이해되는 바, 편측형의 평면구성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양측형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17세기에 이르면 안동 주변의 영양, 영덕지방과 국가건립의 사례들에서 편측형과 양측형 및 중앙형의 사례들이 보인다.

18세기 이후에는 안동지방에서는 편측형의 사례들을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편측형의

32) 田鳳熙, 全南地域의 茅亭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10卷5號, pp.70~71, 1994. 5

33) 류근주, 김경표, 고설식 온돌집의 조영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13권11호, 1997.11, p.221참조

사례들보다는 양측형의 사례들이 대부분 건립되고 있고, 중앙형의 사례들도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2. 양측형 고설식 온돌집(도정서원 강당)



사진 3. 중앙형 고설식 온돌집(방초정)

이러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상류계층의 마루공간 활용이 도입된 온돌방의 활용보다 컸으나, 차후 온돌방의 효용성과 활용의 증가에 따라 온돌방의 면적이 커지거나 또는 건물의 기능에 따라 양측형 평면구성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4. 고설식 온돌구조의 변천

온돌구조는 난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온돌구조부의 높이 및 아궁이의 위치, 내부고래의 형태, 굴뚝의 높이와 존재 유무 등은 그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다.

온돌 구조부의 높이는 난방을 위한 열효율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부엌은 일반적으로 방바닥에서 2.5~3.0尺을 낮추어 바닥을 이루고 이 바닥에서 약 1.5尺 내외 높스로 부뚜막 시설을 하여 솥을 건다. 부엌의 바닥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 불길을 방고래로 잘 빨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³⁴⁾.

고설식 온돌집의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의 높이는 보편적으로 1.2m 이상의 높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닥의 높이가 클수록 불길을 방고래로 잘 빨아들인다는 측면에서, 고설식 온돌집의 난방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된다. 한편, 기존의 전통건축에 온돌을 시설할 경우에는 지면의 흙을 파내어 고래를 만들어 별도의 고래를 쌓아 올릴 필요가 없는데, 고설식 온돌집은 돌을 쌓아서 고래를 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온돌구조부가 지면에 매입된 사례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면으로부터 방바닥의 높이를 높혀 열효율을 높였으며, 지면 위에 온돌구조부를 시설하여 시공상의 고도의 기술력과 효용성을 고려한 것은 온돌구조의 발전적 형태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례들의 온돌 아궁이는 상아궁이와 하아궁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⁵⁾.



34) 張慶浩, 韓國의傳統建築, 文藝出版社, p.524, 1994.

35) 류근주·김경표, 앞논문, pp.32~34, 1997. 9

표 4. 고설식 온돌구조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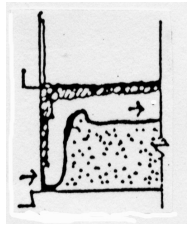
시기 형식	16C		17C		18C		19C		온돌 형식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전 기	후 기	
상 아 궁 이 형	안동권	쌍수당, 모전루, 겸암정	난고정, 처인당, 월담헌	삼수당, 화수루	덕후루				
	경주권	무변루		삼괴정	옥간정	연정			
	상주권			선지당	방초정, 청월루		대산루, 영류정, 삼괴당, 염수재		
	기타권			광한루, 강릉, 옥천, 회인향교			응청각		
하 아 궁 이 형	안동권	군자정, 탁청정, 후조당	침수정, 숙운정 서지제사	몽화각, 청간정, 도암정, 모고재	도정서원, 체화정	월록서당, 경제정 명서암			
	경주권				모고헌				
	상주권				사로당	심소정	화수루		
	기타권			와룡암	삼척향교			청령헌, 여산향교	

사진 4. 하아궁이 온돌형식(사로당)

고설식 온돌집의 최고(最古)인 군자정, 탁청정, 후조당은 하아궁이형의 일자형 온돌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16세기초에 건립되었다. 지역적인 분포도 안동지역이며, 온돌형식도 동일성을 띠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고설식 온돌집 아궁이의 원형은 하아궁이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아궁이형의 온돌구조는 16세기 후반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데, 안동과 경주의 무변루에서 보이고 있다. 16세기초의 사례들보다 불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아궁이를 온돌구조부의 상부에 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초에는 상아궁이형과 하아궁이형의 온돌구조가 사용되고 있는데, 상아궁이형은 안동 주변인 영양과 영덕지역에서, 하아궁이형은 안동과 영덕에서 나타나고 있다.

17세기초에 중수된 옥천향교와 회인향교 명륜당은 동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형성되었는데, 회인향교는 현재 온돌부가 철거되었다. 20여년 전에는 옥천향교 명륜당과 동일한 온돌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³⁶⁾. 동일한 목수에 의해



사진 5. 상아궁이 온돌형식(옥천향교 명륜당)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제로 뜬온돌형식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온돌방의 하부에 구들을 들어 올려, 그 하단으로 통과가 가능하게끔 구성한 사례는 두 사례에서만 볼 수 있다. 건물 전면에서의 시각적 배려를 고려한

36) 본 연구자가 회인향교 보수전 현장답사시, 건물 상부바닥 하단 목부재의 結構부분에서 탄화흔적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추정해 본 결과, 옥천향교 명륜당의 온돌구조와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것으로 사료된다. 즉 경사지형의 중단에 높은 루의 하단을 개방시켜 시각적 배려를 하면서, 겨울의 추위를 고려하여 뜬온돌을 들인 형태로서 고래가 없이 구들을 들였지만, 형태와 기능을 고려한 最適의 구성으로 보여진다.

17세기 후반에는 봉화, 영덕지역에서 하아궁이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 영덕에서는 상아궁이형이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안동에서 건립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며, 봉화, 영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18세기초에는 고설식 온돌집이 분포하는 전역에서 상, 하아궁이형의 온돌형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천지역과 상주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건립된 건물들은 개인 또는 문중의 강학처 성격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18세기 후반에는 하아궁이형의 온돌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세기에는 상아궁이형의 온돌형식이 상주권과 주변의 충북 영동지방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중수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비추어 창건당시의 온돌바닥구조의 형식은 알 수 없지만, 현재와 동일한 형식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³⁷⁾.

실질적으로 하아궁이의 구들은 부넝기라는 것이 있어 불길의 고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아궁이형에서는 온돌구조부의 높이차로 불의 유입을 막고 있어 하아궁이형보다는 발전된 온돌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6세기초에 건립된 고설식 온돌집은 안동지방에서 하아궁이형의 온돌구조로부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에 상아궁이형으로 진전되어 동일지역에 건립된 측면이 있다. 17세기초에 주변의 영양과 영덕지역으로 상아궁이형이 보급되었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아궁이형과 발전된 하아궁이형의 온돌구조도 보편화되어 파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7)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번의 보수가 있었으나, 건립 당시의 형태로 보수하였다고 한다.

4. 결론 및 제언

고설식 온돌집을 구성하는 실내 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의 교류과정에 대한 고찰과 고설식 온돌집의 형성과 전개과정의 분석을 통해 고설식 온돌집의 조영의미를 찾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고설식 온돌집은 고래(古來)로 부터 마루를 중심으로 한 상류계급의 건축물에 서민계층의 온돌이 나중에 도입되어 변용된 건축양식, 즉 상류계급 주거에 온돌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마루마루가 가지고 있는 위계성 유지를 위해, 온돌 구조부의 높이를 높혀 동일 레벨의 바닥 높이로 건조한 건축형식이다.

2.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들은 안동권, 상주권, 경주권의 경북지역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적 편중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설식 온돌집이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안동을 중심으로 봉화, 영덕, 영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사대부계층이 많이 활동하고 유교문화를 타 지역보다는 일찍 상류문화로 수용하였던 측면이 크다. 이러한 상관관계에 비추어, 고려시대 상류계층의 문화적 요인이 고설식 온돌집을 형성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3. 고설식 온돌집 평면구성의 전개는 온돌방이 양측면에 있는 양측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편측형, 중앙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구성의 전개에 있어서는 16세기 안동지역에서 편측형이 우선하고 있으며, 17세기 이후로 고설식 온돌집이 분포하는 전역에서 양측형과 중앙형이 나타나고 있다.

고설식 온돌집의 사례에서 편측형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류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마루에 하류계층의 온돌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차

후 온돌방의 효용성과 활용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마루공간보다는 온돌방의 면적이 커지면서 또는 건물의 기능에 따라 양측형 구성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고설식 온돌집의 온돌구조는 상아궁이형과 하아궁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온돌구조의 전개과정은 16세기초에 건립된 고설식 온돌집은 안동지방에서 하아궁이형의 온돌구조로부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에 상아궁이형으로 진전되어 동일지역에 건립된 측면이 있다. 17세기초에 주변의 영양과 영덕지역으로 상아궁이형이 보급되었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아궁이형과 발전된 하아궁이형의 온돌구조도 보편화되어 과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설식 온돌집은 높은 마루와 높은 온돌구조가 한 건물에서 결합된 형태로서, 마루와 온돌의 결합과정에 따라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설식 온돌집은 우리나라 온돌과 마루의 교류과정을 밝히는데 주요한 실마리가 되며, 실질적으로 상류계층의 마루에 온돌이 나중에 도입되어 변용된 건축양식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질적 바닥구조인 마루와 온돌을 하나의 건물 안에 수용하기 위해, 온돌 바닥 및 마루 바닥의 레벨, 또는 그 형상 등을 변형시킨 다양한 건축형식이 생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나타난 건축형태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이 총체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마루와 온돌이 결합(結合)되어 나타나는 우리나라 전통주거의 성격과 특성을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마루와 온돌이 결합된 전통주거의 건축사적 의미를 재정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2. 高麗史
3. 김경표·류근주, 고설식 온돌집의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9호, 1997. 9
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5. 김중현, 한국고통건축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 김일진, 한국건축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7.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통건축, 누정건축, 1996
8. 東文選
9. 류근주, 고설식 온돌집의 조영특성,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
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문화재관리국, 1985
1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2. 박명덕,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10호, 1993. 10
13.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1997
14. 이용범 외, 동문선의 누정기에서 본 고려 중.후기의 누정건축고, 건축역사연구 2권2호, 1993.12
15.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
16.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17.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85
18. 진봉희, 전남지역의 모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5호, 1994. 5
19. 정기범, 전통온돌의 구조와 열성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0. 朝鮮王朝實錄
21. 조원석, 火の使い方から見た民家構法の形成に関する研究, 동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2. 조원석, 우리나라 전통주택내부 바닥구조의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1호, 1997.11
23. 淺川滋南, 中國の民家.住居史研究, 日本建築史學會誌 第20號, 1993. 3
24. 최영준, 영남대로 -한국 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0